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;">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</div>		배포일시	2020. 9. 25.(금)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	도시재생경제과	담당자	• 과장 김동익, 사무관 염지원, 주무관 박주영, 전문위원 최승욱 • ☎ (044) 201-4926, 4922, 4923	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7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혁신적 도시재생기업 발굴·육성...제2호 모태펀드 출범 - 28일부터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-
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년창업, 중소·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제2호가 출범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출범하기 위한 첫 단계로, 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 모집을 9월 28일(월)부터 10월 15일(목)까지 약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도시재생 모태펀드 제2호는 250억 원 규모*로 조성·운영될 계획으로 연내 운용사를 선정하고, 2021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기업 발굴·투자에 착수할 계획이다.
 - * 주택도시기금(도시계정)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을 결합
 - 국토교통부는 보다 유망하고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도시재생 분야 기업에 투자 경험을 지닌 운용사는 우대하여 선정한다는 계획이다.
- 2019년 도입된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(도시계정)과 민간출자금을 합하여 3년간('19~'21)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, 제1호 펀드는 작년 12월 운용사를 선정하여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기업 발굴·투자 중에 있다.

[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현황 및 계획]

구분	제1호 펀드 (`19.12월 운용사 선정 ~`20.6월 펀드결성)	제2호 펀드 (`20.11월 운용사 선정 ~`21.上 펀드결성)	제3호 펀드 (`21.下 운용사 선정 ~`22년 펀드결성)	계
기금출자	200억 원	200억 원	100억 원	500억 원
민간출자	50억 원	50억 원	25억 원	125억 원
계	250억 원	250억 원	125억 원	625억 원

-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*에서 사회·문화·환경·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·벤처기업(무도장·유형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) 등을 중심으로 투자**하게 되며,

* 도시재생법 상 쇠퇴요건(인구감소, 사업체 수 감소, 노후주택 증가)을 만족하는 지역 중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

** 기업당 10억 원 내외, 20~30개 내외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 계획

- 향후 성장한 기업으로부터 회수한 투자금을 다른 도시재생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경제 선순환의 효과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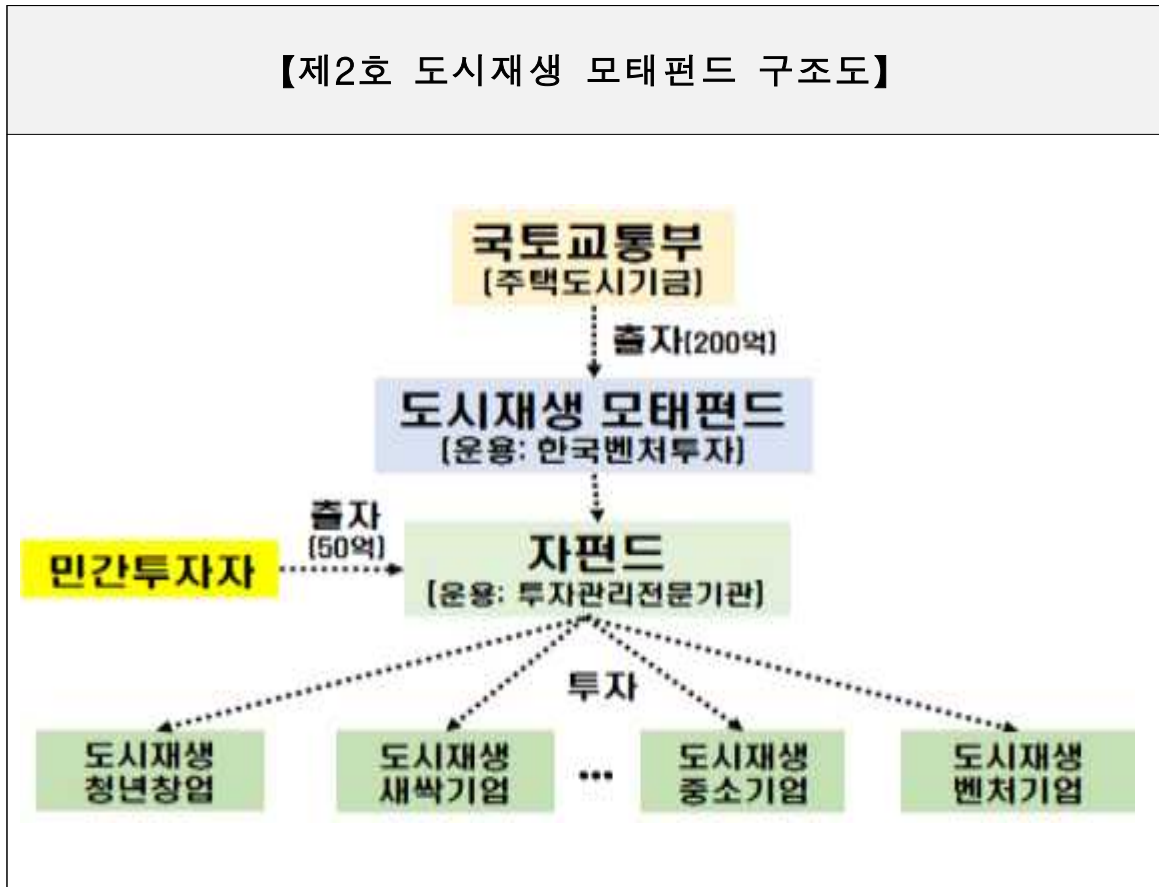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“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구도심 내에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한단계 도약이 필요한 청년, 새싹기업(스타트업) 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”이라며,

- “모태펀드를 통해 구도심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다양한 도시재생 청년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운용사 모집 관련 세부내용은 9월 28일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(www.kvic.co.kr)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염지원 사무관(☎ 044-201-492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(기본개념)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, 민간 벤처캐피탈(운용사)이 결성하는 펀드(자펀드)에 출자하는 펀드* (Fund of Funds)

* 한국벤처투자에서 위탁운영 중

- (운영기간) 최대 10년간 운용(투자 3~4년 + 회수 6~7년)
- (재원구성) 총 250억 원(주택도시기금 200억 원 + 민간출자금 50억 원)
- (투자대상)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사회·문화·환경·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·벤처기업 등